

## 韓國 高等學生들의 데이팅 暴力에 관한 研究

박옥임\*, 배영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순천동산여자중학교

### I. 서론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활동 중의 하나로 여겨 젊은이들이 이성을 알게 되고, 적합한 상대를 찾아 결혼에 이르게 되는 배우자 선택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박경란 외, 2001), 그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며, 자기 성찰과 발달과업을 완성해간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 등으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정신적으로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의 개념과 자신의 성적 정체감이 정립된다. 최근은 성 개방 풍조와 대중 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 및 성적 자극 등으로 이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교제가 증가하였으며, 점차 연소화 되어가고 있다(박소영, 1998).

인간은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켜 가기도 하며, 남녀간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고, 적합한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사회생활의 중요한 과정 수행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갈등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가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인데, 이성교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폭력이 증가되고, 폭력의 종류 및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Roscoe과 Benaske(1985)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51%가 과거 이성교제 단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 전 데이팅 단계에 있는 남녀간의 폭력에 관한 연구(김예정·김득성, 1999)는 제한적인 편이다.

그 가운데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데이팅 폭력은 직접적인 데이팅 폭력으로 연계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적, 성적폭력은 익명성과 신속성 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상의 폭력은 대체로 여성이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남성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자 표현을 통한 성폭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수월하게 의사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데이팅 폭력을 대면적인 데이팅 폭력과 사이버 데이팅 폭력으로 나눠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 1. 데이팅 폭력의 개념

데이팅 폭력에 대한 정의는 '데이팅'과 '폭력'에 대한 개별적 정의를 내린 후에 '데이팅 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데이팅'이란 미래의 상호작용, 정서적인 헌신, 혹은 성적 친밀감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끌 수 있는 상호 보상적인 활동에 미혼 남녀가 참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Cate & Lloyd, 1992).

데이팅과 폭력의 합성어인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을Thompson(1986)은 상대방을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행동이거나 행동을 하려는 위협으로, Carlson(1987)은 혼전 단계에서 낭만적 사랑을 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정의했고, 이영숙(1998)은 미혼의 남녀가 결혼 전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했다. 한편 김용미(1999)는 미혼의 남녀가 혼전 단계에서 심리적, 신체적,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모두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미혼의 남녀가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해(harm)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팅이 대면적 데이팅이라면 사이버 데이팅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팅(채팅)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폭력의 개념은 같다. 다만 대면적인 데이팅 폭력을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유형으로 나누고, 사이버 데이팅 폭력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제외하고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 나누었다.

### 2. 대면적 데이팅 폭력의 실태

선행 연구에서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문희(1993)의 연구에서는 36% (남학생 22%, 여학생 13.9%), 울산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35.1%, 한국 청소년의 연구(1996)에서는 50.2%, 가장 최근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50.5%의 학생들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교제가 증가할수록 데이팅 폭력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수 있다.

Henton(1983)은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 71.4%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의 연구에 의하면 644명의 고등학생 중 78명(12%)이 데이팅 폭력을 경험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도 교제 중인 20%의 미혼 남녀에게서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Sigeman, Berry, & Wiles, 1984; Arias, Samios, & O'Leary, 1987; Riggs, O'Leary, & Breslin, 1990; White & Koss, 1991). 그러나 최근의 연구(O'Keefe,

1997: O'Keefe, 1998)에서는 폭력의 발생률이 약 40% 정도로 데이팅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는데(김예정, 1993: 김용미, 1996a, 1996b, 1999: 이영숙, 1998: 김정란·김경신 1999: 김예정·김득성, 1999: 김용미·김현옥, 2000),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용미·김현옥, 2000)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 3.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실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정책사회연구소(2001)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상의 일반 사이트 피해는 욕설이 46.1%, 성관련 욕설이 34.2%, 사이버 섹스 요구가 29.6%, 성적 표현이 24.5%, 스토킹이 16.6%, 현실적인 성관계 요구가 15.8% 순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51.8%, 남성은 27.9%로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39.6%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을 본 후에 모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0.5%(남학생 77.9%, 여학생 22.9%)가 모방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경험자 중 47.5%가 모방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성폭력상담소(2000)에 의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외설물을 접촉한 경험은 50.4%며, 85%의 학생들이 채팅을 경험했고,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경험은 594명 중 42.8%(254명),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묻는 문항에 254명 중 13.6%(3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1%(87명)는 원조교제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대면적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면적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사이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면적인 데이팅 43문

항, 사이버 데이팅 28문항, 관계 변인 27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10문항 총 10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예비 조사한 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도시인 광주, 부산, 대구 광역시와 중소도시인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강원도 속초시,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인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함열읍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문계와 실업계, 학년,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600부를 배부한 후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52부를 제외한 54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 1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분석

연구 결과를 대면적 데이팅 폭력과 사이버 데이팅 폭력으로 나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면적 데이팅폭력**을 살펴보면 첫째,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6%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이성교제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대부분의 고등 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나 연령 차이가 많지 않은 선·후배와 교제하고 있었다. 또한 데이트 기간은 1개월 미만인 28.3%로 가장 많아 이성교제 기간이 대체로 짧은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전체 응답자 548명 중 심리적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고등학생은 32.8%, 가해는 35.6%로 김현옥(2001)의 14.4%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폭력은 피해와 가해 모두 침묵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로 43.6%와 43.3%로 심리적인 폭력을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를 무시하는 비언어적인 대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신체적인 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 피해 경험이 18.5%, 가해 경험이 18.3%로 김현옥(2001)의 11.9%보다 증가된 추세이다. 신체적 폭력의 유형별로는 피해와 가해 모두 세계 밀치는 경우가 20.2%와 1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성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20.8%, 가해 경험은 18.2%며, 유형별로는 다른 사람과 빗대어 놀리거나 비난한 경우가 피해 경험 21.5%, 가해 경험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폭력이나 강제적인 성교가 4.7%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모두 전체적 폭력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폭력의 유형간에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고, 상관 계수가 비교적 높아 폭력간에 연관성이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폭력의 경험이 더 많았다. 신체적 폭력의 가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경험했고,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서로 높았다.

**일곱째**, 심리적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 심리적 폭력의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 신체적 폭력의 피해에 학교 폭력, 신체적 폭력의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 성적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 성적 폭력의 가해에 약물 복용과 학교 폭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관계 변인들이 데이팅 폭력에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이버 데이팅 폭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 응답자 중 사이버 데이팅을 경험한 고등학생은 64.1%며,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44.5%로 익산성폭력상담소(2000)의 43.8%의 사이버 데이팅 유경험자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데이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팅 상대자는 대부분 또래 집단이고, 데이팅 기간도 1개월 미만이 가장 많고, 대부분 문자 채팅으로 데이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시간은 심야 시간이고, 폭력의 피해 장소는 가정, PC방이나 게임방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피해의 경우 40.3%, 가해의 경우 21.1%며, 유형별로는 인간적인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경우가 피해 72.4%, 가해 43.9%로 가장 많았다.

**셋째**,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성적 폭력의 피해는 41.9%, 가해는 18%이나 데이팅 유경험자 244명 중에서는 피해가 94.3%, 가해가 40.6%로 대부분의 유경험자들이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관계 변인들끼리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심리적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와 학교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 성적인 폭력의 피해에 가정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 가해에 폭력의 수용 태도와 학교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경험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서 폭력간의 상호 교류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데이팅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별로 폭력의 수용 태도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사이버 데이팅 폭력(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피해에는 가정 폭력이, 가해에는 폭력의 수용 태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가정 폭력의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데이팅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